

##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정체성: 제국과 혁명투쟁을 둘러싼 서술(1905-1945)

야스이 유타로 ■ 연세대학교\*

김승배 ■ 부경대학교\*\*

### 〈국문요약〉

북한의 역사 교과서는 일본의 통치(1905-1945) 시기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이 연구는 김정일 시기에 출간된 『조선력사』(2008)와 『혁명력사』(2003), 그리고 김정은 시기에 출간된 『력사』(2015)와 『혁명력사』(2013) 등, 총 4개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진행한다. 특히 북한 역사 교과서에 있는 제국에 관한 서술과 혁명투쟁 관련 서술에 초점을 맞추고,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정체성을 부각시킨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역사는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의 역사였다. 일본을 비롯한 제국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박탈하여 탄압했지만, 이에 대한 저항은 혁명투쟁으로서 승화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주도한 자는 김일성이며, 그는 북한의 역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제국에 대한 저항과 수령을 정당화하는 북한의 역사 정체성은 결국 역사 교과서라는 국가적·사회적·문화적 학습 도구를 통해 ‘기획’되어 있다.

\*주제어: 조선력사, 력사, 혁명력사, 일제, 역사 정체성

## I. 서 론

사물의 시간적 변천 과정이나 그 양상은 역사로 서술되어 후세에 남게 된다. 다만, 과거 역사적 양상의 현재적 복원은 관찰자들의 입장이나 의도, 그리고 활

\* 주저자.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 석사(E-mail: nj9855576@naver.com)

\*\* 교신저자.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일본학전공 조교수(E-mail: soon648@gmail.com)

용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한 역사의 전달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역사 교과서는 주로 교육의 근간 역할을 하는 학교에서 사용된다. 역사 교과서가 교육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들과 차이가 있다. 역사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들은 특정 지역, 사회, 국가를 지탱하는 역사 인식을 공유하게 된다.

이 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의 통치 시기(1905-1945)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sup>1)</sup> 특히 북한의 일본을 포함한 제국들에 대한 서술과 이에 맞섰다고 하는 북한식 혁명투쟁 서술 내용을 밝힘으로써 최종적으로 북한의 역사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역사 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김정일 시기에 출간된 『조선력사』에 대한 내용분석(이찬희 2004)이나 김정은 시기의 『조선력사』 구성을 분석했다(이서영 2018). 북한의 역사교육이란 “김일성 혈통의 지배를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역사 교과서는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와 동시에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 이상적인 국가”라고 주장한다(정영순 외 2020, 5-8). 이러한 견해는 북한의 역사 교과서를 성찰한 연구자들의 공통된 평가이며, 본고는 이에 동의한다.

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접근과 관점으로 기존연구들과의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기존연구가 현대사에 집중하는 경향과 달리, 본고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 시기는 북한 탄생의 전사(前史)로 간주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관한 서술은 결국 1948년에 탄생한 북한에 정통성 및 전통성 주장의 전제적(前提的) 역사가 되며, 명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이 현시점에서 그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부각하는 것은 북한의 역사 인식과 더불어 견지하는 정체성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1905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를 분석하는 이 연구는 더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하나의 교과서에 머물지 않는다. 하나의 교과서에 집중하는 경향과 달리, 본고는 연구범위인 해당 시기를 다루고 있는 복수의 교과서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2008년에 출판된 『조선력사』(중학교6)와 2015년에 출판된 『력사』(고급중학교3), 그리고 북한의 독자적 이데올로기를 담아낸 2003

1) 북한은 “일본의 조선강점”은 1905년 “을사5조약”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간주한다. “이때부터 41년동안이나 조선을 감정하고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했다는 것이다(리인형 2008, 6).

년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중학교4)와 2013년에 출간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고급중학교1) 등, 4개의 교과서를 살펴본다. 『혁명력사』가 일반적인 ‘역사교과서’라고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내세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역사 관련 교과서’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북한이 바라보는 ‘제국’과 이에 맞섰다고 주장하는 북한식 투쟁의 서술에 주목한다. 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당이 국가보다 상위에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선전을 위한 권력구조를 표출하고, 북한의 정치적 현실성을 헌법을 통해 규정한다(최선·김재우 2018, 163). 헌법이 국가적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에서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혁명투쟁은 분명히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 역사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넷째, 북한의 역사 교과서가 제국과 혁명투쟁 내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본고는 최종적으로 북한의 역사 정체성(historical identity)을 제시한다. 주로 발달심리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던 정체성 연구는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도 많이 활용된다.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인지하게 되는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나 다양한 요인을 통해 만들어지겠지만,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 역시 정체성 형성에 크게 작용한다. 특히 학습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학생이라면 역사 교과서는 자신의 존재와 공동체를 연계시키는 주요 경로가 된다.

북한 역사교육에서는 김일성 일가의 역사와 그 이외의 역사를 별개의 과목으로서 학습한다. 먼저 『조선력사』 및 『력사』를 보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는데, 김정은 시기에 새로 등장한 고급중학교 『력사』는 북한의 국사와 세계사를 동시에 학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1〉 북한 학제와 역사과목<sup>2)</sup>

김정일 시기 교과서			김정은 시기 교과서		
학년	과목명	내용 범위	학년	과목명	내용 범위
중학교 1	조선력사	구석기 ~ 발해	초급중학교 1	조선력사	구석기 ~ 고구려
중학교 2	조선력사	고려 ~ 6.10 만세시위투쟁	초급중학교 2	조선력사	발해 ~ 고려
중학교 3	조선력사	원시사회 ~ 발해와 후기신라	초급중학교 3	조선력사	위화도 회군 ~ 독립운동
중학교 4	조선력사	고려	고급중학교 1	력사	원시사회 ~ 발해와 후기신라
중학교 5	조선력사	15세기 리조봉건 국가의 발전 ~ 갑신정변	고급중학교 2	력사	고려 ~ 조선 봉건왕조
중학교 6	조선력사	일본의 조선 강점 ~ 3.1 인민봉기 이후	고급중학교 3	력사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

※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

이 연구의 연구범위는 북한의 역사 교과서의 근대사 서술 부분이다. 이를 위해, 김정일 시기에 발행된 ① 리인형, 2008, 『조선력사: 중학교6』(평양: 교육도서출판사) 및 김정은 시기에 발행된 ② 박영철 외, 2015, 『력사: 고급중학교3』(평양: 교육도서출판사)을 활용한다. 북한 고급중학교 3학년에서 역사 수업은 주당 2시간이 실시되어 있다(국립통일교육원 2021, 246).

한편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력사 수업이나 다른 교과목보다 상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혁명력사>, <항일의 려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혁명력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력사>의 네 가지가 있고, 교과서의 제목 역시 동일하다. 사실 『혁명력사』는 『조선력사』나 『력사』보다 중요하다. 북한교육의 목적이 사회와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혁명가 육성에 있기 때문이다. 일련의 <혁명력사> 과목들은 ‘정치사상교과’에 해당한다(조정아 2014, 196).

이 연구는 북한이 김일성의 업적을 강조하는 역사교육이라는 측면을 중시한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를 활용하고, 이하 이를 『혁명력사』라고 표시한다. 김일성에 관한 『혁명력사』는 고급중학교 1, 2학년에서

2) 이서영(2018, 107)의 연구물을 참고로 작성했다.

활용되고, 1학년은 주당 3시간, 2학년은 주당 1시간이다(국립통일교육원 2021, 246). 1학년은 김일성 출생부터 1950년대까지를 다루고, 2학년에서는 1960년대부터 사망까지를 범위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학년에서 사용되는 『혁명력사』를 활용하여, 1945년까지를 연구범위로 삼는다. 『혁명력사』에 관해서도 2003년도 김정일 시기와 2013년도 김정은 시기의 자료를 고찰한다. 즉, 김정일 시기에 발행된 ③ 강홍수, 2003,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중학교4』(평양: 교육도서출판사), 그리고 김정은 시기에 발행된 ④ 최동철 외, 2013,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고급중학교1』(평양: 교육도서출판사)이다. 이상 ①~④의 네 가지 교과서들을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대(對)제국 인식 및 투쟁 인식을 밝힌다. 그리고 본고는 교과서 내용 중에서 ‘교시’를 중시한다. 북한에도 여러 정치사회적 규범들이 존재하지만, 수령의 교시는 각종 법률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다(이기동 2011, 78). 교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역사 인식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역사 인식이기도 하다(김도형 2020, 21). 여전히 북한 역사교육의 중심에는 김일성이 있다.

## II. 제국에 관한 서술

〈표 2〉 2008년 『조선력사』 및 2015년 『력사』 차례

2008년 『조선력사』 차례	2015년 『력사』 차례
제1장. 일제의 조선강점, 반일의병투쟁과 애국문화운동 제1절. 1905년 일제의 조선강점 제2절. 반일의병투쟁 제3절. 부르조아 <민권> 운동과 애국문화운동	제1장. 19세기 후반기의 조선 제1절.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대내외정책 제2절. 자본주의 련갈들의 조선침략과 인민들의 투쟁 제3절. 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투쟁
제2장. 1919년 3.1인민봉기 제1절.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 제2절. 1910년대 반일독립운동 제3절. 3.1인민봉기	제2장. 일제의 조선강점과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 제1절. 조선을 독점적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일제의 책동 제2절.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시작 제3절. 우리 인민의 반일독립운동
제3장. 3.1인민봉기 후 대중운동의 성장과 초기 공산주의운동 제1절. 일제의 교활한 <문화통치> 제2절. 부르조아민족운동의 쇠퇴 제3절. 3.1인민봉기 후 대중운동의 성장과 초기 공산주의운동 제4절. 19세기 후반기-20세기 초의 문화	제3장. 국제로동운동, 제1차 세계대전 제1절. 맑스주의창시와 국제로동운동 제2절. 제1차 세계대전 제4장.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승리와 세계적 범위에서 혁명운동의 새로운 양상 제1절. 첫 사회주의국가의 출현과 쏘련에서 사회주의건설 제2절. 10월혁명 후 세계적 범위에서 혁명운동의 새로운 양상
	제5장. 파시즘의 출현과 제2차 세계대전 제1절. 파쇼국가들의 출현과 반제반파쇼통일전선운동 제2절. 제2차 세계대전의 폭발, 쏘도전쟁 제3절. 태평양전쟁

## 1. 리인형. 2008. 『조선력사: 중학교6』.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8년에 발행된 『조선력사』는 시각적인 사진이나 단어 해설도 거의 없고, 글만으로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이다. 머리말에는 학습 목표가 있다. 먼저 머리말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학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적 입장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는 6학년에서 배우는 <조선력사> 과목에서도 외래침략자들과 반동적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우면서 력사발전을 주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궁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야만적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워왔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리인형 2008, 2).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식민지통치를 지적하고 있지만, “인민의 투쟁” 대상은 “외래침략자들과 반동적봉건통치배들”이기도 하다.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이듬해 “조선을 강점”했는데,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교시가 삽입되었다.

미제는 19세기말부터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왔으며 1905년에는 가쓰라 타프트의 비밀협약을 체결하고 일제의 조선강점을 도와주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조선강점”에 “적극”적이었고, 영국도 이를 지지했기 때문에 “미영제국주의”라는 용어로 표시되었다(리인형 2008, 4-5). 물론 이 시기에 대해 『조선력사』는 “일제”의 행동양식에 큰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일본과 협조함으로써 항일투쟁을 방해한 존재였다는 것이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에 관해서는 “미영제국주의자들도 일제와 한쪽이 되어 리준일행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서술했다. “세계의 그 어떤 강대국도 조선독립을 선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남의 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경고해주었다”는 교훈을 제시했다(리인형 2008, 12). 안중근에 대해서는 “일제놈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의 애국적투지를 과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탁월한 지도자의 령도 밑에 조직적인 혁명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리인형 2008, 13).

『조선력사』는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일본을 무자비하고 잔혹한 존재로 묘사했다. 북한 특유의 공세적인 언사는 『조선력사』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민”에게 일본의 통치 및 조선총독부와의 싸움은 물리적 힘이 수반된 투쟁이었다. “3.1인민봉기의 폭발과 확대발전”은 “먼저 평양과 서울에서부터 타올랐”는데, 평양에서는 김일성의 부친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영향을 받은 평양승실대학교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의 주도적 역할”이 컸다. 당시 “여덟살”이었던 김일성은 “시위대렬에 참가”했고, “이날 우리 민족의 류혈을 처음으로 목격”한 그의 “마음은 분노로 끓어번지시였다”고 했다(리인형 2008, 27). 3.1운동 때, “미제는 일제와 한짜이 되어 우리 인민의 독립운동을 악랄하게 반대해나섰”으며, “일제놈들에게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총칼로 사정없이 족쳐야 한다고 부추기였다”는 것이다(리인형 2008, 30).

『조선력사』에서 투쟁 대상은 일본을 비롯하여 “미영제국주의자”, “리조봉건통치배”, “부르조아민족주의자”이기도 했다. “일제의 야수적만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결국 일본과 미국이 짝을 이루었다고 강조되었다. “3.1인민봉기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의하여 결국 목적을 이룩하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3.1인민봉기가 실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운동이 탁월한 수령, 혁명적인 계급과 혁명적인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한데 있었”고,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제한성과 숭미사대주의에 있었”다는 것이다.

3.1운동이 북한에 주는 함의로서는 첫째, 3.1운동을 계기로 “19세기 중엽부터 수십년동안 계속되어오던 부르조아민족운동의 시기는 끝나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점차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둘째, 3.1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그것은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셋째, “이 운동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열렬한 애국적투지와 불굴의 기개를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 넷째,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각성을 비상히 높여”주었다. 다섯째, 3.1운동의 역사적의의는 “다른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도 적지 않은 고무적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리인형 2008, 30).

『조선력사』는 일본에 대한 투쟁의 역사를 일관적으로 서술했지만, ‘주체’ 없는 항일투쟁은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러일전쟁을 계기로 다시 시작한 “반일의병투쟁”은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인민의 높은 반일애국정신을 보여주었다”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는데, 이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고 한다(리인형 2008, 11). 『조선력사』의 인식에서 분명히 일본은 “적국”이지만, 이에 영미제국주의가 수반되었다.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3.1운동까지 일정 정도 반일투쟁을 평가하고 있지만, 현실적 실패 원인은 수렁 없는 항일투쟁이었다는 관점을 견지했다.

## 2. 박영철 외. 2015. 『력사: 고급중학교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김정은 시기에 발행된 2015년 『력사』의 특징은 2008년 『조선력사』와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외관상 『조선력사』와 달리 『력사』는 사진과 칼럼 등이 게재되었다. 사진은 선명하지 않고 흑백이지만, 역사를 가시화시킴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사진은 역사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사진은 관찰자들에게 공감과 정체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의식적으로 정체성을 반영하기도 한다(Morris-Suzuki 2005, 118). 『력사』에서 많은 사진이 게재된 배경에는 교과서 인쇄 상태의 향상이 있을 것이다.<sup>3)</sup>

둘째, 서술하는 시대 영역의 확대와 함께 일본의 식민지통치 양상을 자세히 서술했다. 예를 들어 인적 수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전쟁터에 내몰아 대포밥으로 만들거나 일본,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들에 끌고가 탄광, 광산, 군사시설건설장들에서 혹사시키고는 집단학살하였다. 특히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강제련행하여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일제에 의해 감행된 국가범죄이며 인류력사와 세계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특대형의 반인륜적 범죄이다(박영철 외 2015, 119-120).

이러한 서술은 과거의 『조선력사』에 찾을 수 없었던 부분이다. 한편 국가총동원법, 전시증세령, 황국신민화, 동조동근, 내선일체, 창씨개명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설명 자체는 간략하다. 그리고 원폭에 의한 일본의 피해를 설명한

3) 『력사』 제2장까지 실린 사진은 다음과 같다. 미국침략선 <셔먼>호, 미국침략선 <셔먼>호 격침도(1866)(지도), 침략선 <운양>호, 대원군, 경복궁 근정전, 명성황후, 척화비, 로씨야공사관에 있는 고종왕, 강화도 초지진포대, 강화도 런무당, 임오군인폭동당시의 군인들, 농민군의 쾰기(그림), 전봉준, 김옥균, 김홍집,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다투는 세력 강들(삽화), 일제가 날조한 <을사5조약>원문, 한성에 기여든 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 투쟁의 나선 의병들, 리준과 헤그의 <만국평화의>장소, 안중근, 홍범도, 류관순, 봉기자들을 학살하는 일제.



바 있다.<sup>4)</sup>

셋째, 2008년 『조선력사』에서는 의병 투쟁이나 3.1운동 실패 원인을 “위대한 수령의 령도” 부재로 했지만, 2015년 『력사』에서는 그러한 서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의병 투쟁에 대해서는 실패 요인으로 탄압, 우유부단함, 지휘전략 체계의 혼란 등을 거론했으나, “수령의 령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3.1운동에 대해서는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3.1인민봉기의 실패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제한성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탁월한 수령과 혁명적 당의 령도를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투쟁도 승리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었다”고 설명했다(박영철 외 2015, 54).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수령을 둘러싼 과도한 강조는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 『력사』의 특징은 서술 범위의 확대에 있다. 제4장은 “사회주의 10월혁명”, 즉 볼셰비키혁명에 따른 세계적 혁명운동, 소련을 통한 “사회주의건설”이다. 이어서 제5장은 “파시즘” 국가의 출현에 대해 반제(反帝), 반(反)파시즘 운동이라는 대결 구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일부이기도 했던 태평양전쟁에 관한 서술이다. 특히 주요 국가들 중에서 소련의 입지를 중시했다. 다음과 같은 서술은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본 제국주의, 파시즘, 사회주의 국가의 구도를 드러낸 것이다.

일본과 도이쉴란드 이탈리아의 침략책동으로 하여 아시아와 유럽, 발칸지역에 전쟁발원지가 형성되었다. 파쑈국가들은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전쟁을 준비하는 한편 1936년 <방공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서로 결탁되게 되었다. 파쑈 국가들에 의하여 세계는 새로운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미, 영, 프 등 제국주의국가들은 파쑈국가들을 사회주의쏘련을 반대하는데 이용할 음흉한 속심에 그들의 침략전쟁책동을 묵인하고 부추겨주면서 교활하게 책동하였다(박영철 외 2015, 116).

『력사』는 일부 세계사적 맥락을 도입했는데, 아래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및 태평양전쟁의 종결을 서술했다.

조선인민을 비롯한 아시아인민의 반일무장항전과 쏘련군대의 공격으로 심대한

4) “원자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미제는 일제의 패망이 눈앞의 사실로 된 때인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였다. 군사작전지역도 군사기지도 아닌 도시들이 원자탄공격대상이 되어 재무지로 변하였으며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박영철 외 2015, 118).

타격을 받아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그해 9월 2일 항복서에 조인하였다. 이로써 4년 동안의 태평양 전쟁은 일제의 패망으로 끝났으며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도 종결되었다(박영철 외 2015, 104).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해 『력사』는 아시아인들의 지속적인 “반일무장항전”과 소련의 역할에 무게를 두었다.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역사교육은 어느 정도 세계사적 맥락을 도입함으로써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역사탐구”라는 학습과제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주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역사교육은 이데올로기적 영향이 크고, 자유로운 토론이나 생각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후술하는 『혁명력사』가 북한 역사교육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 Ⅲ. 투쟁에 관한 서술

〈표 3〉 2003년 『혁명력사』 및 2013년 『혁명력사』 차례

2003년 『혁명력사』 차례 (제3장 이하 생략함)	2013년 『혁명력사』 차례 (제3장 이하 생략함)
제1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 개척 제1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 1. 혁명적 가정에서 탄생 2.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 제2절. 혁명활동 개시,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제3절. 길림에서의 청년운동 1. 비밀독서조 운영 2. 청소년조직 결성 3. 동맹휴학,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 제4절. 주체사상 창시 제5절. 카륜회의 제6절. 항일무장투쟁 준비 1. 첫 당조직 결성 2. 조선혁명군 결성 3. 혁명조직의 복구와 농촌혁명화	제1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탄생, 조선 혁명위업 개척 제1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 1. 혁명적 가정에서 탄생 2.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 제2절.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제3절. 길림에서의 청년운동 1. 새 세대 공산주의자 육성 2. 일제와 반동군벌을 반대하는 대중투쟁 연구와 발표(1) 제4절. 주체사상, 선군사상 창시 제5절. 카륜회의 제6절. 첫 당조직 결성, 당조직의 확대 제7절. 항일무장투쟁 준비 연구와 발표(2) 연구와 발표(3) 연구와 발표(4)

2003년 『혁명력사』 차례 (제3장 이하 생략함)	2013년 『혁명력사』 차례 (제3장 이하 생략함)
<p>제2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p> <p>제1절. 항일무장투쟁 조직전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월구회의</li> <li>2. 인민유격대 창건</li> <li>3.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 창설</li> <li>4. 왕재산회의</li> <li>5. 소왕청방위전투</li> <li>6. 다홍왜회의</li> <li>7. 무장투쟁을 넓은 지역으로 확대</li> </ol> <p>제2절. 항일무장투쟁의 일대 앙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호두회의</li> <li>2. 새 사단 편성</li> <li>3. 조국 광복회 창립</li> <li>4. 백두산 근거지 창설</li> <li>5. 보천보전투</li> <li>6. 마당거우군정학습</li> <li>7. 남패자회의</li> <li>8. 고난의 행군</li> <li>9. 무산지구전투</li> <li>10. 대부대선회작전</li> </ol> <p>제3절.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할바령회의</li> <li>2. 소부대활동</li> <li>3.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위한 군정훈련 강화</li> <li>4. 전민항쟁 준비</li> <li>5. 조국광복의 실현</li> <li>6.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의의, 혁명전통 창시</li> </ol>	<p>제2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p> <p>제1절. 항일무장투쟁 개시, 확대발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월구회의</li> <li>2. 반일인민유격대 창건</li> <li>3.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 창설 연구와 발표(5)</li> <li>4. 반일인민유격대의 국내진출</li> <li>5. 유격구방위전</li> <li>6. 조선혁명의 주체적립장 고수 연구와 발표(6)</li> <li>연구와 발표(7)</li> </ol> <p>제2절. 항일무장투쟁의 일대 앙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호두회의</li> <li>2. 새 사단 편성</li> <li>3. 조국광복회 창립</li> <li>4. 백두산근거지 창설 연구와 발표(8)</li> <li>5. 국내진공작전, 보천보전투</li> <li>6. 고난의 행군</li> <li>7. 무산지구진공작전</li> <li>8. 대부대선회작전 연구와 발표(9)</li> <li>연구와 발표(10)</li> </ol> <p>제3절. 항일무장투쟁의 최후승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할바령회의</li> <li>2. 소부대활동</li> <li>3.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위한 군정훈련 연구와 발표(11)</li> <li>4. 전민항쟁 준비 적극 추진</li> <li>5. 조국해방위업 실현</li> <li>6. 주체의 혁명전통 창시</li> <li>연구와 발표(12)</li> <li>연구와 발표(13)</li> <li>연구와 발표(14)</li> </ol>

1. 강홍수. 2003.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중학교4』.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3년 발행 『혁명력사』는 1912년 김일성 출생을 주체 1년으로 간주함으로써 시작하며, 그의 ‘업적’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북한식 표현을 빌리면, ‘주체’ 이전과 이후의 역사적 분기점을 드러낸다. 『혁명력사』는 김일성 일가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는 사상적 교육이며 역사 교육이다. 2008년에 발행된 『조선력사』가 김일성 없는 항일투쟁의 실패를 언급했다면, 『혁명력사』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강조했다. 따라서 『혁명력사』는 항일무장투쟁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전개를 서술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고난의 역사보다 투쟁과 혁명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이 교과서의 특징은 머리말에 있는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요약된다.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과 투쟁업적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의 교과서입니다(강홍수 2003, 1).

김일성은 “주체1(1912)년 4월 15일 평양시 만경대에서 탄생”했다. 이미 “조선은 말 그대로 인간생지옥으로 되”어 있었다. 『혁명력사』는 그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의 가족사부터 설명했다. 즉, “혁명적 가정에서 탄생”한 김일성은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혁명적 교양”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일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이 나쁜 놈들이며 식민지사회가 나쁜 사회라는 교양을 받았”다고 함으로써 타도해야 할 존재가 일본뿐만 아니라, 지주와 자본가를 포함했다(강홍수 2003, 5-8). 항일무장투쟁은 일본에 대한 저항을 넘어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1926년을 현대사 기점으로 보는데, 그것은 김일성이 10월 17일에 결성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중시한 결과이다.<sup>5)</sup>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며 최종목적은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는

---

5) 타도제국주의동맹은 1979년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이름으로 출간된 『조선로동당력사』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이러한 것은 북한의 신화 만들기이며 유일권력 정당화 등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 특유의 시간 인식이기도 하다(구갑우 외 2019, 70-71).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북한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당의 역사적 뿌리”였다(강홍수 2003, 12-13). 1927년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했다. 이는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청년들을 다 받아들이는 대중적인 지하혁명조직”이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었던 조직들을 통일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탄생했다(강홍수 2003, 17). 역사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혁명력사』 역시 김일성 청년기를 묘사함으로써 청년 혁명을 호소했다.

『혁명력사』는 소련이나 미국과 같은 “큰 나라만 쳐다보면서 그들의 도움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고” 하는 자들을 비판했다. 혁명이란 “자기 결심에 따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혁명의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체사상은 이 시기에 창시된 것이었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강홍수 2003, 21).

주체사상은 1929-30년 시점의 혁명 와중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sup>6)</sup> 193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 카륜회의에서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밝혔다고 한다. 『혁명력사』에 따르면, “우리 인민은 일제와 봉건적 지주를 때려 부시고 민주주의독립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김일성은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했다. 『혁명력사』는 이를 “제국주의침략자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과 봉건지주놈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반봉건혁명을 다 같이 수행하는 혁명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혁명의 대상은 다양했지만, 이 시기에 중요한 대상은 일본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김일성의 교시에서도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했다(강홍수 2003, 23-24). 『혁명력사』에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김일성이 “조선혁명군”을 결성했다고

6) 물론 주체사상은 1930년대에 주창된 것이 아니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부터 김일성이 1930년대에 주체사상을 창시했다는 연설문이나 보고서가 작성되었다(서대숙 1989, 264-265).

한다.7) 김일성의 교시에 따르면 “공산주의리념에 의해서 지도되며 군중정치사업도 하고 군사활동도 하는 정치 및 반군사조직”이었다(강홍수 2003, 27).

『혁명력사』에서 1931-45년까지의 역사는 <제2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라는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시기 항일무장투쟁의 방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장투쟁”이다. 김일성의 교시에 따르면,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것이다(강홍수 2003, 35). 물론 이 시기에 있어 주적은 일본이기 때문에 반일, 항일이라는 용어들이 수많이 나온다. 그렇지만 더 비중을 둔 것은 김일성의 활동과 전투이다.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 확대하기 위해 방침을 제시한 <왕재신회의>, 1933년에 승리한 <소왕청방위전투>, 1935년 민생단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던 <다홍왜회의>는 “혁명의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했다고 한다(강홍수 2003, 41-52).8) 1936년 김일성은 <남호후회의>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발표함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 “조선혁명”을 호소했다. 이어서 조국광복회(祖國光復會)을 창립했고, 다음과 같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했다(강홍수 2003, 56-61).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때려 부시고 진정한 조선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문제, 산업국유화와 토지개혁, 8시간 노동제, 남녀평등권,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비롯하여 제반 민주주의적 시책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들을 규정하였습니다.

『혁명력사』에 따르면, 1930년대 중반, 일본군이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전쟁준비를 하면서 “식민지통치”를 강화했다. 1937년 <보천보전투>의 의의는 일본인을 “몇명 죽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일제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 준” 것이었다(강홍수 2003, 66-68).

결국,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은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중일전쟁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의 역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 <소할바령회의>를 계기로 “항일무장투쟁은 새로

7) 조선혁명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은 다르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을 의미하지만, 당시 정식명칭이 있지는 않았고, 조직유격대, 조선빨찌산, 조선부대, 김일성 부대 등, 다양했다(金成鎬 2003, 27).

8) 일본의 첩자(諜者)라는 혐의로 중국공산당에 의해 숙청된 민생단 사건에서 최대 수혜자는 김일성이었다. 이를 조명한 것으로 정병일(2008, 593-603)의 연구물을 참조.

은 발전단계,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단계”로 들어갔고, <소부대활동>으로 “적들”은 “비명을 질렀”다는 것이다(강홍수 2003, 88-91). 투쟁을 위한 준비, 훈련, 그리고 증강의 중요성을 지적한 『혁명력사』는 김일성의 영도가 승리를 이끌었다고 했다. 즉, 김일성은 “20년간의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강도 일제를 때려 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했다. 북한의 역사는 일본과 대등하게 맞선 것으로 서술되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승리는 “새 조선” 탄생으로 이어졌다.

우리들은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에 토대하여 건당, 건국, 건군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갈으로써 새 조선 건설의력사적 과업을 반드시 빛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강홍수 2003, 105).

## 2. 최동철 외. 2013.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고급중학교 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년 김정은 정권기에 출간된 『혁명력사』는 앞서 보았던 2008년 『조선력사』에서 2015년 『력사』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2003년 『혁명력사』에 비해 종이 상태나 인쇄 상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리고 2013년 『혁명력사』는 해설이나 본문 요약, <연구와 발표>, 복습 및 연습 문제를 게재함으로써 학습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 자유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사상교육의 강화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토론과제 부분에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결의를 말하시오”라는 질문 항목이 대표적이다(최동철 외 2013, 114).

2013년 『혁명력사』의 내용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했다. 2003년 『혁명력사』와 비교하면, 목차 항목의 핵심은 변화가 없지만, 내용은 더 세부적으로 서술되었다. 문장 서술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자세히 쓰기’와 ‘다시 쓰기’가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2012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교육과정도 개편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정치사상교육이 강화되면서도 세계적 추세를 고려한 흔적이 있다(조정아 2014, 177).

어쨌든 변화가 보인다. 김정일 시기의 교과서에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김정은 시기에서는 학습자료인 교과서의 격식에 맞춘 표현으로 문장이 구성되었다. 김정일 시기에 나온 교과서 중에서 김일성에 관한 서술

은 김일성의 회고록이나 전집에 의존했는데, 이 『혁명력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서”라고 표시함으로써 상대적이지만 출처를 밝혔다. 그리고 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교시를 새롭게 삽입함으로써 이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과 수령의 위대성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불명의 혁명력사를 깊이 체득하는 과정에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됩니다(최동철 외 2013, 1).

『혁명력사』는 김일성의 생애, 사상, 활동, 전투, 승리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이지만 김정일에 관한 언급이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15년 교과목으로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력사』가 간행되었다. 김정일의 생애 및 사상을 다룬 것이지만, 『혁명력사』에서도 김정일과의 관계성이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배우며 자라는 혁명의 계승자들의 가장 큰 영예이고 행복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슴깊이 지닌 주체형의 혁명가가 되는데서 첫째가는 과업이다(최동철 외 2013, 1).

일반적으로 김정일이 주창한 선군정치 또는 선군사상은 1995년 이후부터 등장했다.<sup>9)</sup> 다만 그 시작에 대해 『혁명력사』는 김일성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김일성이 “선군사상”을 창시했다고 한다. 2003년 『혁명력사』 제1장 제4절은 “주체사상”이라는 절이었지만, 2013년 『혁명력사』 제1장 제4절은 “주체사상, 선군사상 창시”로서 함께 서술되었다. 즉, 1929년 무렵에 창시되었다고 하는 주체사상과 똑같이 선군사상 역시 이 시점에 창시되었다는 것이다.

#### 선군사상 창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는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우선 아버님으로부터 두자루의 권총을 물려받으시고 <트. ><sup>10)</sup>의 강령

9)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통치이데올로기의 대체, 양립, 하위담론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하위담론이다(부승찬 2011).

10) 1926년에 결성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약칭이다.



을 제시하시여 선군사상의 시원(사물현상이 시작되는 처음)을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화성의숙에 가시기 전부터 군사적 대결에 의해서만 일제를 타승할 수 있고 군사를 알아야 독립운동의 앞장에 설 수 있다고 보시었다(최동철 외 2013, 26-27).

결국, 다음과 같은 선군사상의 설명은 군대의 필요성과 투쟁을 추진하는 혁명의 승리를 의미했다.

선군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군사를 앞세우고 혁명군대를 주력으로 하여 전반적 혁명운동을 밀고 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군사상을 창시하십시오으로써 조선혁명은 승리와 영광의 길, 선군의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최동철 외 2013, 28).

이러한 선군사상의 도입은 “조국해방위업 실현”에도 언급되었다. “혁명투쟁에 서의 빛나는 승리는 전적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인 김일성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이룩”되었다는 것이다(최동철 외 2013, 111).

사상적 맥락의 강화 및 일관성 만들기는 “제국주의”에 관한 서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30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김일성이 소집한 카륜회의에서는 “각지에서 온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들이 참가”했는데, <조선혁명의 지로>라는 보고서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부분은 2003년 『혁명력사』에서도 서술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국주의와 관련한 언급은 2013년 『혁명력사』의 특징이다.

제국주의는 자체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으로 하여 식민지에서 결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으며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레외없이 야수적인 폭력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제국주의침략세력은 혁명적 무력으로 때려부셔야 합니다 (최동철 외 2013, 30).<sup>11)</sup>

일본에 대한 빛나는 승리는 “주체”의 중요성 강조로 마무리되었다.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 과정에서 “주체의 혁명전통 창시”가 일어난 것이다. 김일성의 교

11) 『혁명력사』에서 민주주의란 “국가가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그들의 이익에 맞게 관철하며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것”이다(최동철 외 2013, 30).

시에 따르면 “투쟁 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립되고 불명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 이룩되었으며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혁명력사』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을 교화했다.

주체의 혁명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주체의 사상체계와 백두의 혁명정진이다.

주체의 사상체계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유일사상체계이다.

(여기서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수령의 유일적령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상과 관점의 체계이다.)

따라서 『혁명력사』를 통해 김일성이 교시한 것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라는 것이다(최동철 외 2013, 112). 여기에 일본의 통치에 대해 투쟁해왔던 김일성의 모습과 이에 따른 북한 역사교육의 핵심적 주장이 있다. 결론적으로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비록 일본을 비롯한 제국들로 인해 조선은 억압을 받았지만, 조선은 이에 대항했고, 일본과 맞서 싸웠으며, 제국주의에 승리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 IV. 역사 정체성과 교과서

2008년 『조선력사』나 2015년 『력사』는 조선이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억압을 당했던 점을 강조했다. 조선에 있었던 모든 항일투쟁은 김일성의 영도 없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혁명투쟁은 1912년 김일성의 출생부터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1945년까지의 역사는 『혁명력사』를 통해 서술되었다.

국가의 성립 혹은 재탄생은 전쟁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침략적 제국주의자들에게 맞서 싸웠던 역사의 기억은 저항을 바탕으로 현재적 정체성, 더 나아가 국가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때 국가는 국민적 자기 이해와 타자에 대한 적대감(enmity)이라는 이미지로 형성된다(Jeismann 2006).

슈미트(Carl Schmitt)는 정치의 원점이 우적관계(Freund-Feind Verhältnis), 즉 동지와 적이라는 대립 상황을 통해 나타난다고 했다. 정치적 영역에서 적은

원시적·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Schmitt 1996, 26-27). 그는 『파르티잔의 이론』에서 적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켜, 세 가지로 분류했다. 국민에게는 무관하지만 군주가 적으로 간주함으로써 나타난 ‘인습적인 적’이나 자신의 실존을 위협하는 ‘실재의 적’이다. 이 두 개념은 전통적 유럽 질서에 존재했으나, 인도(人道)에 대한 범죄자, 즉 인간 전체의 적으로서 표현되는 ‘절대적인 적’은 20세기의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절대적인 적에 대한 공격은 불가피한 것이며,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는 존재이다(Schmitt 2007, 87-95). 북한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은 “반인류적 범죄”를 범한 절대적인 적이었다. 조선에 대해 억압적인 일본은 타도해야 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에 맞선 역사를 통해 수령의 위대함을 학생들에게 학습시킴으로써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고조시킨다. 학생들은 스스로 ‘주체형의 혁명가’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프랑스 역사학자 노라(Pierre Nora)에 따르면, 기억은 삶의 문제와 직결하여 진화한다. 한편 역사는 과거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며, 보편적인 사망감이 부여된다. 기억은 역사로 이행하며, 기억은 역사에 의해 장악된다. 이 이행으로 사회 집단은 물론 개인의 정체성이 재규정된다(피에르 노라 2010, 34-48). 이러한 기억과 역사의 구별이나 기억으로부터 역사로의 이행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논의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정체성이라는 귀착점이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역사에 대한 학습은 정체성과 직결한다. 정체성이란 타자로부터 자아를 구별하는 영역성을 부각시키는데, 정체성을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사회행위자들이 자신의 지배 확대 혹은 합리화를 위해 지배적인 제도를 사회에 도입시킨 정당화 정체성(legitimizing identity)이다. 둘째, 지배적 행위자의 원리에 반대하거나 저항함으로써 생존의 추세를 구축하는 저항 정체성(resistance identity)이다. 셋째, 사회행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재정 의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기획 정체성(project identity)이 있다(Castells 1997, 7-12).

이러한 세 가지 분류법은 북한 역사 교과서를 통해 볼 때, 또 다른 관점으로 포착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당화, 저항, 기획의 정체성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연계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역사는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의 역사였다. 제국은 자신들의 가치를 박탈하여 탄압했다. 이에 대한 저항은 혁명투쟁으로서 승화되었는데, 이를 주도한 자는 김일성이며, 그는 북한의 역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 제국에 대한 저항과 수령을 정당화하는 정체성은 결국 역사 교과서라는 국가적·사회적·문화

적 학습 도구를 통해 ‘기획’되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개념 고찰은 바로 언어나 용어, 서술어에 대한 탐구가 관건이 된다(나탈리 하이니히 2021, 12-13). 정체성의 특징은 먼저 언어 행위를 통해 구성되며, 역사의식, 문화유산, 집단기억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조합됨으로써 국가 정체성이 작동된다. 다수의 정체성을 집합시킨 국가 정체성은 결국 언어를 포함한 역사성을 통해 구성되는 동시에 맥락을 가지게 된다(나탈리 하이니히 2021, 40-41). 분명히 언어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행위자이다. 이러한 행위자의 담론은 북한에서 더욱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북한 역사 교과서에서 보다 중요하며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에는 김일성의 교시가 삽입된다. 이는 서술적 문장 구조를 넘어 지도자의 메시지를 직접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감성적 양태를 취한다.

국가 정체성으로 지목되는 영역은 국가라는 주체의 과거와 관련하며, ‘역사적인 것’과 직결한다. 역사 정체성은 국가 정체성에 내재되는 국민 의식을 말하는데, 특히 과거의 역사적 기억과 경험에 관련된다. 예를 들면, 소련의 붕괴는 소련은 물론 소련에서 독립한 민족들이 유지해왔던 역사 정체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때 기존의 역사 정체성은 수정되고, 새로운 역사 정체성을 모색하게 된다. 역사 정체성은 과거와 현재를 연계시키는 장치이며, 국가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Ruutsoo 1995, 167-168).

역사 정체성은 국가 정체성이라는 거대 영역 중에서 국민의 역사의식 영역을 차지한다. 역사 교과서에서 서술된 용어나 내용은 역사교육을 통해 역사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역사 교과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제국에 맞섰고, 혁명투쟁을 이룩했다는 고유의 역사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 V. 결 론

이 연구는 김정일 시기에 출간된 『조선력사』(2008)와 『혁명력사』(2003), 그리고 김정은 시기에 출간된 『력사』(2015)와 『혁명력사』(2013), 총 4개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역사 교과서가 1905-1945년까지의 역사 중에서, 특히 제국과 혁명투쟁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역사 교과서에서 제국의 필두는 일본이지만, 미국과 영국을 부각

시킴으로써 적국이기도 한 제국들의 연대를 비판했다. 북한 역사 교과서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시작한 항일투쟁이나 3.1운동을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으나, 2008년 『조선력사』에서는 항일투쟁의 실패 원인은 수령의 영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함으로써 그러한 역사는 수령 등장에 대한 갈망으로 변환된다. 교과서 문장에 있어도 자극적이며 감상적 언어를 활용했다. 그러나 2015년 『력사』에서는 수령을 둘러싼 과도한 강조를 상대적으로 완화시켰고, 자극적인 언설이 비교적 억제되었다. 아울러 1930년대 일본 식민지 정책들의 용어와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하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조선’을 둘러싼 세계사적 배경을 일부 도입했다.

둘째, 북한에서 역사교육은 과거에 『조선력사』, 현재는 『력사』라는 교과서가 있지만, 이러한 교과서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혁명력사』이다. 이 교과서는 제국과 맞선 김일성의 인물사 서술을 중심으로 한다. 무엇보다 김일성에 의한 혁명투쟁의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혁명적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다. 『혁명력사』는 김일성의 투쟁 양식, 조직력, 지도력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여기서 ‘조선’은 작은 존재가 아니었고, 일본과 대등하게 싸우고 승리한 하나의 주체였다. 김정일 시기와 달리 김정은 시기의 『혁명력사』에서는 자극적인 표현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혁명력사』, 즉 김일성의 투쟁 역사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김일성 일가의 위대함에 대한 체계성을 갖추었다.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정체성 혹은 국가 정체성이라는 영역을 언급할 때, 역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 역사 교과서에서 제국과 혁명투쟁에 관한 서술은 북한의 역사 정체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역사 정체성은 모든 국가에 있을 것이며, 이는 새로 탄생한 독립 국가의 경우에는 새로운 역사 정체성을 모색하기도 한다. 특히 역사 교과서는 특정 지역의 역사의식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역사의식이 역사 교과서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역사 정체성의 핵심 장치이기도 하다. 외부 정보가 차단되고 학문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는 역사 교과서가 거의 유일한 학습 도구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학생들은 사상교육 체계를 수용함으로써 보다 공통적이며 공고화된 역사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 정체성을 가진 자가 또 역사 교과서를 서술함으로써 역사 정체성은 더욱더 강화된다. 결국, 북한의 역사 정체성은 역사 교과서라는 국가적·사회적·문화적 학습 도구를 통해 기획된 것이었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홍수. 2003.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구갑우, 이우영, 김태경. 2019. “두 ‘평양시간’: 북한문학에 투사된 북한 특유의 시간과 마음.” 『문화와 정치』 6(2), 69-100.
- 국립통일교육원. 2021. 『2021 북한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 김도형. 2020. “북한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근대사 서술 분석: 『조선력사』(중학교 제2학년용) 근대사 부분을 중심으로.” 정영순, 김도형, 정경희, 권희영 공저. 『북한의 역사교육』.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金成鎬. 2003. “‘朝鮮人民革命軍’ 호칭에 대한 일검토.”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21, 1-17.
- 나탈리 하이니히(Nathalie Heinich) 저, 임지영 역. 2021. 『정체성이 아닌 것』. 부산: 산지니.
- 리인형. 2008. 『조선력사: 중학교6』.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박영철 외. 2015. 『력사: 고급중학교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부승찬. 2011.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상관관계.” 『사회과학연구』 19(2), 108-137.
- 서대숙 저, 서주석 역. 1989.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 이기동. 2011.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권력구조.” 『국방연구』 54(1), 77-93.
- 이서영. 2018. “김정은 시대 북한 『조선력사』 교과서 구성 분석.” 『사회과 교육연구』 25(2), 103-114.
- 이찬희. 2004. “북한 중학교 『조선력사』 교과서 내용분석.” 『북한연구학회보』 8(1), 195-219.
- 정병일. 2008. “‘반민생단투쟁’의 정치사적 의의: 김일성 부상과 조국광복회 성립의 동인.” 『사회과학연구』 16(1), 578-608.
- 정영순, 김도형, 정경희, 권희영. 2020. 『북한의 역사교육』.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조정아. 2014.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통일정책연구』 23(2), 177-206.
- 최동철 외. 2013.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최선, 김재우. 2018. “북한의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변화.” 『국가안보와 전략』 18(4), 161-190.
- 피에르 노라(Pierre Nora) 저, 김인중 역. 2010.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기억의 장소들에 관한 문제제기.” 피에르 노라 외 저, 김인중, 유희수, 문지영 역. 『기억의 장소 1: 공화국』. 파주: 나남, 31-67.

### 영문 자료

- Castells, Manuel. 1997. *The Power of Identity*. Malden, Mass.: Blackwell.
- Jeismann, Michael. 2006. “Nation, Identity, and Enmity: Towards a Theory of Political Identification.” in *What Is a Nation?: Europe 1789-1914*, edited by Baycroft Timothy and Mark Hewitson, 17-2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rris-Suzuki, Tessa. 2005. *The Past Within Us: Media, Memory, History*. Reno, Nevada: Verso.
- Ruutsoo, Rein. 1995. “The Perception of Historical Identity and the Restoration of Estonian National Independence.” *National Papers* 23(1), 167-179.
- Schmitt, Carl. 1996.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Translated by J. Harvey Lomax.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7. *Theory of the Partisan: Intermediate Commentary on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Translated by G. L. Ulmen. New York: Telos Press.

Abstract

## **Historical Identity in North Korea's History Textbooks: Description about Empires and Revolutionary Struggle(1905-1945)**

Yutaro Yasui ■ Yonsei University

Soongbae Kim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descriptions of North Korean history textbooks about the Japanese colonial period(1905-1945) in the Korean Peninsula, and aims to analyze North Korean textbooks by utilizing four materials including the 'Joseon Ryeoksa'(Joseon History) and 'Hyeongmyeong Ryeoksa'(History of the Revolutionary) published under the Kim Jong-il regime and the 'Ryeoksa'(History) and 'Hyeongmyeong Ryeoksa'(History of the Revolutionary) under the Kim Jong-un regime. This study also focuses on their descriptions about the empires and the revolutionary struggle, and examines differences and changes between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regimes.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North Korean history has been a history of 'resistance,' of struggle against the imperialism. Their values had been suppressed by the empires and their resistance was sublimated into a revolutionary struggle. Kim Il-song led their history and he was the only figure who could legitimize the North Korean history. The North Korean historical identity, which legitimates resistance history against the empires, was projected through its national, social, and cultural learning materials.

Key Words: Joseon Ryeoksa(History), Ryeoksa(History), Hyeongmyeong Ryeoksa (History of the Revolutionary), Empire of Japan, historical identity

□ 논문접수일: 2022년 10월 15일, 심사완료일: 2023년 2월 14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15일